

#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8,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8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미 2장과 3장에서 여러 번 암시했듯이 성격이 다소 다른 부분에 도달합니다. 2장과 3장은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역사적 교회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평가입니다.

이제 4장부터 우리는 이 책의 일종의 묵시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우리는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보았지만 이제 4장부터 시작하여 4장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요한복음의 끝까지, 적어도 22장의 일부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장과 5장을 이 책의 일종의 지지대 또는 이 책의 신학적 중심으로 표시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4장과 5장은 교회의 수많은 찬송과 노래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합당하시도다 또는 그에게 많은 면류관을 씌우시며 그의 보좌에 계신 어린양과 같은 찬송을 떠올리기 위해 아주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림 등.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구두로 영감을 받은 다른 노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을 보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곡을 살펴보면 바라건대 각 장에서 그들이 왜 함께 속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과 5장은 전혀 두 개의 별도 장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4장과 5장은 내러티브 내에서 하나의 환상적 부분, 즉 하나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전체적인 기능,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초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요점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본 것인데, 4장과 5장은 일종의 비전의 나머지 부분을 설정하거나 준비합니다. 6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것이 6장부터 22장까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며, 이 환상 부분에서 유래하고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 묘사된 모든 구원의 축복은 이 부분에서 나온다. 우리가 6장부터 19장까지 읽는 모든 심판은 6장과 일곱 인으로 시작하여 4장과 5장에서 나온 모든 심판입니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볼 때 다소 강렬합니다. 예를 들어 난기류와 모든 종류의 난기류가 가득한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상황이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던져지는 것.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조종석, 즉 왕좌의 방에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6장부터 19장까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눈.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선과 악 사이의 어떤 이원론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이원론적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결국 해결될 때까지 불확실합니다. .

4장과 5장은 선과 악 사이에 이원론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에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주권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6장부터 22장까지를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고 준비한다.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온 하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환상을 봅니다.

천국은 4장과 5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뒷받침하자면,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그 위치는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이 할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요한의 관점이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천국에서의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온 하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지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주권, 특히 로마 제국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로마교는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며 하늘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거부하고 거부하며 심지어는 반역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구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로마와 같은 제국과 왕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장과 5장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하늘에서 온전히 인정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땅에서도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의 숭배는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결국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구, 그것에 맞서는 지구.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의 나머지 부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6장부터 22장까지는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장면이 결국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묘사합니다. 그것은 결국 21장과 22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위에서 온 땅은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방언의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상황에서 마침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에서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 맞서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이러한 통찰은 리차드 보컴(Richard Bauckham)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나는 그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일부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로 모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땅에서는 아직 그 뜻이 인정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직 이 땅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주기도문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이 주로 예배에 관한 책이지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차례 연결하여 말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언급하지만,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특권적인 통찰력을 주거나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시간표와 차트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본질적으로 예배에 관한 책이다. 4장과 5장은 과연 누가 우리의 숭배를 받기에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인가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와 황제는 전 세계에 평화와 안정, 번영과 축복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충성과 숭배를 주장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이 씨름할 질문 중 하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씨름해야 할 질문 중 하나가 누가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어떤 인간도, 어떤 민족도, 다른 나라도,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오직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만이 만물의 주재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들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관련된 4번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 4장과 5장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입니다. 로마제국의 주장.

4장과 5장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그의 주권과 어린 양을 인정하는 분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과 5장은 로마의 주장과 충돌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전에 이미 언급했지만, 이 말을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계시록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메시지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너무 눈에 띄고 노골적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큰 박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4장과 5장을 읽고 자신의 통치, 왕좌, 자신의 주장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왕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가이사를 보좌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로마 제국의 주장과 충돌하고 계시록이 명백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5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두 개의 별도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속적입니다. 둘 다 같은 배경, 즉 하나님의 보좌실을 갖고 있으며, 보좌는 두 장면이 돌아가는 일종의 중심점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우주의 창조자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두루마리를 떼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며 온 하늘의 경배를 받으시는 어린양을 봅니다. 따라서 4장과 5장은 다시 하나의 연속적인 환상, 두 장면이지만 하나의 환상의 일부이며 동일한 배경인 하늘 보좌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소개하고 4장과 5장에 대한 방향을 잡는 방법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각 장을 살펴보고 주요 기능을 고려하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서, 특히 많은 이미지 뒤에 숨어 있는 구약성서의 사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4장부터 22장까지의 서론을 통해 한 가지 더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4장과 5장뿐만 아니라 4장부터 22장에도 초점을 맞추십시오. 4장은 요한계시록의 환상 부분을 시작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교회사 전반에 걸쳐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계시록을 해석한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계시록을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읽은 거의 모든 논평은 이러한 라벨을 활용하고 있으며 확실히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4에서 22까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학자들과 주석서들은 거의 누구에게나 선택하여 서문을 읽을 수 있으며 요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다양한 범주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카테고리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주석가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해석하는 많은 접근 방식이 소위 과거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주의적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말하거나 대부분이 1세기만을 언급합니다. 즉, 그것은 단지 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설일 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사건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4장부터 22장까지가 1세기에 일어났던 일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거주의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역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으며 설명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일곱 교회의 관점 중

하나와 유사하다. 우리는 더 이상 대중적이지 않은 대중적인 견해를 말했지만, 과거에 대중적인 견해 중 하나는 일곱 교회가 교회 역사의 일곱 시기를 예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현대에 이르는 교회 역사의 기간을 실제로 예측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물론,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변화함에 따라 이것이 계속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에서 교회사 역사의 거의 모든 시대에 맞는 부분을 자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이 1세기에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정점에 달하는 교회사에 대한 일종의 예측이라는 역사적 견해는 대중적인 견해를 찾지 못합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상주의적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1세기나 교회사를 통한 특정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미지와 상징은 일종의 초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 그것들은 1세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의 이미지를 교회와 사탄, 하나님과 사탄 사이, 교회를 통한 투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어떤 세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은 단지 1세기를 초월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일반적인 상징일 뿐이고, 단지 신과 악 사이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결국 신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어느 한 사건이나 인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는 기간.

최종 견해는 이전주의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종 관점은 미래주의 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4번부터 22번까지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일 뿐이며 교회는 여전히 4장부터 22장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접근법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물을 해석한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분류인 것처럼 일시적인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초점이 이러한 사건이 언제 발생하는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일부 기독교인이나 계시록 해석가 중 일부는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시간적으로 적합한지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의 초점은 본문이 말하는 것에만 집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아시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점을 어떻게 이해했을 것입니까? 따라서 아마도 우리가 이미 암시했듯이 아마도 우리의 해석은 때때로 이러한 접근 방식 중 두세 가지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그 중 하나만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범주라고 제안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시적으로 언제 발생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문학적 맥락에서 기능하는 이러한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일곱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그래서 4장, 요한계시록 4장,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특히 4장 5장, 4장과 5장을 읽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문자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John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마도 그가 독자들을 위해 의도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각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이 텍스트를 해부하고 현미경으로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전의 힘을 잃어 보지 않도록 이미지와 그 아름다움이 다시 우리 눈앞을 지나가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일종의 비전의 효과를 느껴보세요. 그래서 4장은 적절한 비전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하늘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즉시 영에 감동되었더니 내 앞에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누군가가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재스퍼와 카넬리안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왕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또 다른 보좌 24개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갯불과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처럼 보이는 이가 있었습니다. 보좌 둘레 중앙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첫 생물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둘째는 소 같았어요.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주위와 날개 아래에도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여”라고 노래했습니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마다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리라.

그들이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놓고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비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은 천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계시는 요한이 하늘에 있는 것 사이를 번갈아 가며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때는 분명히 땅에 있거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다음 다시 하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경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전을 시작하는 지점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종말로서 요한이 현실에 대한 천국의 관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독자들이 경험적 물리적 세계를 내다보는 것처럼 요한은 이제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제거되고, 휘장이 제거되고, 덮개가 제거되어 요한은 또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존이 어떤 꿈의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은 별개의 다른 현실이 아니지만 이것이 진정한 현실입니다. 이제 독자의 상황은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그 뒤에 놓여 있는 하늘의 현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한의 비전은 하늘이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는 이제 하늘을 들여다보고 그와 그의 독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관점을 형성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4장을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문이 열려 있으며, 이어서 음성을 듣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의 일부였습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 묵시록에서는 선견자나 환상가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언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열렸다는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천국이 열렸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비전이 열렸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시고 종말론적인 환상을 보고 계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혹과 마태복음 4장 1-11장은 모두 요한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셨던 묵시적인 환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는 이 일은 묵시문학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배경은 이사야와 함께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요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인 에스겔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구약성경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종종 주제별로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섹션에서 그는 해당 섹션에서 전달하려는 주제를 전달하는 본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이 에스겔서를 따를 때 그는 거의 에스겔서 자체의 순서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열린 하늘에 대한 언급은 에스겔서 1장과 1절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3년째에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13년째 오월 4월에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그 날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리고 아마도 그 구절만으로도 다른 종말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토퍼 롤랜드(Christopher Rowland)라는 영국 학자의 저서 <열린 천국>(The Open Heaven)이라는 책에 대해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 1.1장이 묵시적인 환상의 개념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한은 자신의 묵시적인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에스겔 1.1장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이제 에스겔과 같은 환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열리고 묵시문학의 공통 주제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제 장막이 걷히고 요한은 그 배후를 보고 천국의 실재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점에서 요한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비전에 대한 이 개념을 에스겔에게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6장에서도 이사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자 요한은 여기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것이 휴거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경험의 일부입니다. 천국이 열리고 선견자는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환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 종말의 공통된 주제 중 하나는 종종 메르카바 종말 또는 일종의 상승 종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여기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유대인 묵시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종종 다양한 천국을 통해 올라가며 숫자가 다릅니다. 때로는 3개일 때도 있고, 7개일 때도 있고, 그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견자는 다양한 천국을 통해 올라가서 각각의 천국에서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마지막 천국, 일곱 번째 천국, 즉 하나님의 보좌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요한이 하늘로 소환되는 것을 볼 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은 이 목소리에 의해 소환되었고, 종말론적 환상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4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요한이 이 환상의 경험에서 본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에스겔서, 특히 에스겔의 천국 비전인 1장과 2장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끌어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6장을 매우 많이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환상적이고 천상의 환상적 경험을 하며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신의 환상이 에스겔이나 이사야의 환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 동일한 하늘 보좌의 방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경험한 것은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 묵시적인 환상에서 이사야와 에스겔의 역할을 스스로 떠맡게 됩니다. 내가 말했듯이 요한은 그의 남은 작업 전반에 걸쳐 이 두 권의 책, 특히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좀 더 주제적으로 책 전체를

돌아다니며 그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본문을 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에스겔 자신이 따랐던 것과 거의 동일한 순서로 따를 것입니다.

또 다른 강조할 점은 요한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에스겔과 이사야를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이 실제, 내 생각에 실제 환상의 경험을 가졌지만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이나 이사야와 같은 이미지와 언어로 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요한은 에스겔과 이사야로 돌아가서 그 본문의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구약 본문과 그의 환상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이끌어 냈습니다. 소유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의 선배들의 언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선배들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요한의 환상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은 4절을 시작하는 이 문구가 이 후에 또는 이 후에 다시 우리가 보게 될 이 언어를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내내 내가 이 일 후에 보았고 이 일 후에 내가 보고 이것을 보았느니라. 그 언어는 마치 2장과 3장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가 그 사건이 끝나면 4장과 5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연대순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순서입니다. 즉 그가 이러한 것들을 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지를 들은 후, 1장에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후, 2장과 3장의 메시지를 듣고 기록한 후에 이것을 보고, 요한은 이제 자신의 환상 경험을 여러 장에 기록할 것입니다. 4, 5장. 4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좌에 대한 언급이다. 그것은 4장과 5장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초점, 중심점 및 거의 인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좌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보좌와 그 중요성에 대해 4장에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나 이제 4장과 5장에 나오는 요한의 환상에서 보좌는 주권과 통치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다시 중요한 특징이나 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실제로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과연 모든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카이사르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왕좌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반제국주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왕좌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가이사가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시거나, 가이사는 예배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은 요한이 본 4장 환상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보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4장에만 13번 등장하며 요한계시록 4장에만 13번 나옵니다. 4장에서 발생하며 5장에서도 발생합니다. 대조되는 또 다른 방식은 이미 2장에서 사탄의 보좌에 대해서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왕좌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통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주권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카이사르와 다른 인간 통치자의 주권에 의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의 4장은 이미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원론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치 이 대결의 결과가 끝날 때까지 불확실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어린양, 그리고 가장 높은 보좌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이 땅, 즉 이 땅과 경쟁하는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4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마음 속에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은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입니다. 존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나요? 그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특정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이벤트입니까? 읽을 때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간적 지표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좀 더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한은 4장의 특정 사건을 어느 때나 묘사하지 않고 단순히 항상 사실인 현실을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분명해지는 특정한 때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이 언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적 징후가 부족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특정 시간적 순간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기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4장에 대해 언급할 또 다른 점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을 때 흥미로웠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서 숨기고 있는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영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본문을 읽는다면 4장의 그리스어 본문을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면 움직임과 활동을 암시하는 직설 동사가 아주, 아주, 아주 적습니다. 그 중 몇 개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천둥과 번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4장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활동과 행동, 움직임을 설명하는 동사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4장은 거의 정적인 장면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환경을 매우 잘 묘사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4장이 아마도 5장의 배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리스어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면 5장에 이르면 갑자기 거기에 모든 종류의 지시 동사입니다. 즉, 천국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활동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다시 4장은 5장의 배경과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관심의 주요 초점이 5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4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러나 4장은 주로 5장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설정과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등장하고 주요 행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4장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4장에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다시 이사야와 에스겔에 이어 요한 대신 요한의 관심이 매우 빠르게 옮겨져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로 옮겨갈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영에 감동되었을 때 내 앞에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더라.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왕좌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좌에 앉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 사람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 모습이 이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를 묘사하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다른 보좌들, 즉 이 24보좌와 보좌를 두른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보좌에서 멀어져 보좌 주변과 그 주변을 묘사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석이나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읽은 NIV 번역에는 벽옥과 홍옥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에메랄드와 비슷한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한 수준에서 이런 종류의 언어는 단순히 비전의 아우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의 광채와 아름다움, 요한이 본 것에 대한 경외심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첫째, 이 보석들이 성전에 속한 돌의 기초를 연상시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돌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사야 54장과 같은 본문이 보석을 사용하여 새 예루살렘의 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의 다른 곳에서는 성전이 금과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석은 성전을 연상시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그 보좌가 좌정하신 곳이니라. 그러나 둘째로, 이 보석들은 아마도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돌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구성하는 돌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들은 아마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지개는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와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암시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이 확실히 여기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과 12장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지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창조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일부였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로 찬양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무지개는 요한의 환상에서 적절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무지개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6장과 9장의 표징은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후에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지 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빛나는 임재를 그분의 하늘 성전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요한이 설명하기를 주저하는 보좌와 그 주인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묵시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종종 묵시적인 문학에서는 왕좌에 앉은 사람이 묘사되지 않지만 그 주변의 모든 것과 그의 광채와 빛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한의 관심은 보좌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 주변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은 두 그룹, 즉 24장로 또는 24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 그룹, 그리고 네 생물로 구성된 또 다른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제 한 수준에서는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이 두 그룹을 모두

다루는 것이 쉽습니다. 이 두 무리 곧 이십사 장로와 이십사 보좌와 네 생물은 무엇을 합니까? 이 환상에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들의 기능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보좌에 계신 분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전체의 주권적 창조주이신 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룹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이 이십사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다소 이상한 말로 묘사되는 이 네 생물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 시점까지는 이 그룹이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그룹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대표하는지, 이 두 그룹이 무엇 또는 누구를 상징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명한 질문은 이 그룹이 천사적 존재를 상징하는가, 아니면 인간이나 인간의 일부 그룹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우리는 한 그룹이나 다른 그룹으로 결정하고 분류하는 것을 거부 하고 둘의 조합을 제안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십사 장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십사 장로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7장과 요한계시록 전체의 다른 몇 군데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십사 장로들은 아마도 네 생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기술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주요 요점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환상에서 그들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주권을 밤낮으로 인정하고, 보좌에 앉으신 분, 곧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해해야 할 주요 요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십사 장로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4장에서 찾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24장로가 구약성경, 특히 역대상 23장 6절과 역대상 24장 7~18절에 나오는 24반열의 제사장을 모델로 한 단순히 하늘에 속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대상에 나오는 24반열의 제사장은 당시 제사장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24명의 하늘 존재들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 24장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암시할 수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등 제사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일이나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는 지금 하늘로 옮겨진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특정한 관점과 연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Left Behind 시리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4-2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실제로 휴거될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교회를 다루고 계시지만, 진노를 쏟기 전, 심판을 퍼붓기 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다루기 전,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원수가 도착하기 전에, 4장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휴거하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24장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해석을 따르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22장이 단지 미래일 뿐이고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심판을 쏟아 부어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24장로를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 번째 가능성은 이십사 장로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늘 대표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묵시문학이 지상 현실의 대응인 하늘의 현실, 또는 지상의 현실의 대응인 하늘의 현실을 보여주거나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제안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위법이거나 하늘에 있는 대응물 또는 반영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우리는 일곱 교회의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는 땅에 있는 교회의 일곱 하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늘 대표자들과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를 더하면 24가 됩니다. 우리가 열두 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교회를 대표하는 열두 사도를 합치면 당연히 스물네 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십사 장로들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늘 대표자들입니다. 네 번째 선택은 이들이 단순히 천상의 궁정에 속한 천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과 같은 본문과 이사야 24장 23절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이 두 본문 모두 하늘 궁정 또는 하늘을 묘사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궁정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24장과 23절에서는 비슷한 상황을 제시하거나 발견한 내용에 대한 배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3절에서 우리는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구절들은 종종 이사야의 묵시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2절: 땅의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한 때에 갇히게 되리니 그들이 갇힌 자 같이 갇힌 자 같으리라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달이 부끄러워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과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누리실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묘사가 보좌에 앉아 하늘 궁정 장로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에 관한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사적 존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이 천사적 존재들에 둘러싸여 있는 하늘의 궁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보좌에 앉은 24장로를 이해하는 데 잠재적인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배경에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 기능을 호출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된 기능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분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천국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섹션에서는 24장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옵션 중에서 그들 중 하나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 사람은 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8,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소개입니다.